



제목	이슬람주의와 이슬람교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지외사랑
발행일	2013. 10. 7.
저자	바삼 티비 유지훈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488
ISBN 또는 ISSN	978-8989007708

#### 내용 요약

이 책은 이슬람주의와 이슬람교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일축한 기존 연구에 문제 제기하면서, 이 둘 간의 차이를 규명한 책이다. 저자는 서방세계를 포함하여 전 세계와 이슬람문명의 관계를 규명하는 이슬람학 전공의 정치학자의 관점에서 두 가지 논지를 주장한다. 첫째, 이슬람교 신앙과 이슬람주의는 다르다. 둘째, 한나 아렌트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이슬람주의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표방한다. 저자에 의하면, ‘이슬람주의’는 신앙이 아닌 정치질서에 중점을 두되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종교화한 정치다. 종교화한 정치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알라의 뜻에 따른 정치질서를 장려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신앙과 종교와 윤리의 기틀로서 정치적 가치를 내포하기는 하되 구체적인 정부 질서를 전제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슬람주의와 이슬람교의 차이점이다. 저자는 이슬람교의 역사와 전성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이슬람주의의 주장을 가리켜 꾸며낸 전통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저자는 이슬람주의와 이슬람교의 차이를 규명한다. 2장~7장은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의 여섯 가지 기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이슬람주의와 정치질서, 이슬람주의와 반유대주의, 이슬람주의와 민주주의, 이슬람주의와 폭력, 이슬람주의와 율법, 이슬람주의와 순결의 관계를 조명하고 분석한다. 8장에서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이슬람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9장에서 저자는 이슬람주의의 대안을 민간 이슬람교에서 찾는다. 민간 이슬람교는 정교분리와 다원주의와 개인의 인권과 세속민주정치를 찬성하기 때문이다.